

순천만정원박람회, 내년 4월 1일 개막

봄꽃 개화시기 맞춰 기간 1개월 연장 150만명 안팎 관광객 증가 효과 기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15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2023년 4월 22일-10월 22일)보다 개막은 21일 앞당기고 폐막은 9일 연장하는 등 총 1개월을 확대하는 것

이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변경을 통해 150만명 안팎의 관광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최일을 변경한 배경에는 정원 관광이 주로 봄·가을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을 상징하는 벚꽃과 튜립의 개화 시기가 4월 초까지 앞당겨지는 등 박람회 기간 조정 필요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다.

봄철 순천 곳곳에 피는 벚꽃은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람회 기간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조정 방침을 확정하고 외부 공표까지 단 2주 만에 완료했다. 조직위 이사회 의결, AI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전남도 승인, 산림청·정부지원실무위원회 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뒤로 하고 속전속결로 추진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에 정원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2013박람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원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핵심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국가정원과 동천저류지를 물길(벚길 복원)과 도보길(강변로 그린웨이)로 연

결하고 저류지를 독일의 본 저류지에 버금가는 녹색정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연향들, 풍덕들 등 도심 곳곳에 꽃, 유색미 등을 심어 경관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는 물론 정원 후방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정원은 호수정원, 개울길 등 기존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식물원과 미래정원, 캠퍼스(가든스테이) 등 새

로운 콘텐츠도 확충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도비 1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광구 시장은 “2013박람회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만들었다면 2023박람회는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 순천을 탄생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직위와 순천시의 역량을 2023박람회 성공 개최에 모두 쏟겠다”고 말했다. /순천=남정민 기자



제4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출범 제4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했다. 화순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4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26명을 위촉하고 의장단,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의장은 박재우(능주구 1년) 의원, 부의장은 주은재(화순중 2년) 의원이 선출됐다. 교육문화, 안전복지, 아동권리위원회 3개 상임위도 구성했다. 4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의원들은 임기 동안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화순군 제공>

‘광양시민의 날’ 행사 4년 만에 열린다

10월 7일 전통솥불구이 축제 연계 문화행사 풍성

광양시는 15일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하는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오는 10월 7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민의 날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시행하는 옥외행사로서 시민의 요구와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8기의 지속 발전을 다짐하고 시민의 애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추진된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의 날 행사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7일 본행사에는 ▲시민의 상·차량스러운 광양인상 시상 ▲민선 8기 비전 선포 ▲건강백세 장수체조 ▲어린이·청소년 공연 ▲민속놀이 ▲명랑운동회 ▲노래자랑 ▲체육경기 등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의 날 전후로 열리는 광양전통솥불구이축제(10월 7-9일)와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10월 8일) 등 문화예술 행사를 연계해 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인화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옥외행사인 만큼 각계각층, 지역예술인, 청소년도 참여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며 “시민이 광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금 20만원 지급

22일부터 2천800명 대상 현금 계좌이체

장성군이 오는 22일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20만원 씩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 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금 대상자 규모는 2천800여명에 이른다.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 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군은 지급 초반 신청 인원이 몰

릴 것을 고려해 지급 첫날부터 5일 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52)로 문의하거나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대형 사업·군민생활 밀접사업 점검

고흥군, 26개 현안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고흥군은 15일 “최근 균형 영향력에서 민선 8기 첫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고흥군의 대규모 사업과 군민생활 밀접사업 등 26개 사업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은 ▲도양 실내수영장·힐링해수탕 건립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옛 군정사 역사문화공원 조성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 등으로 지역개발, 정주여건 개선, 농수축산 등 다양한 분야로 이뤄졌다.
군은 신규 대규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선 8기 전부터 추진해 온 현안 사업들의 완성도와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광복 77주년 기념 해양 영토 순례

해양경찰교육원, 서·남해안 해양영토 815해리 항해

해양경찰교육원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간 미래해양인재 77명과 함께 서·남해안 해양영토 순례를 실시했다.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선인 ‘바다로향’ (사진)을 타고 진행된 순례는 격렬비열도, 마라도 등 서·남해안 주요 영해기점을 포함한 해양영토 815해리를 돌아봄으로써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수호 의지를 다졌다.

순례에 참여한 미래 해양인재는 전국 해·수산 관련 대학교 10곳에서 추천받은 학생 43명과 해양경찰 245기 신입과정 교육생 34명 등 총 77명으로 광복 77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교육 중인 신입과정 학생들이 함께 순례를 떠남으로써 미래 해양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 고민 해소 등 멘토링 기회 제공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며 서남해안의 영해기점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으로써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만65세이상무료·만60세이상50%

담양군은 15일 “최근 국가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를 일부 지원해 경제적 부담 해소와 발병·합병증을 줄이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소 두고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증명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유료 접종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백신비 50%(4만1천원)를 지원한다.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한 뒤 접종받을 수 있다. 윤태



식 담양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접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p>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2>당진(신축)원룸매매</h2>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신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베이터, 입주및공사시작</p> <p>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4천 (5/26)</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td> </tr> </table> <p>010-6670-9800 (062-382-5500)</p>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4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4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